

구.약.편

홍성민 << 한국성서학연구소 비상임 연구원

1. 본문: 에스겔 7장 5절

가. 히브리어 본문

כֹּה אָמַר אֲדֹנָי יְהוִה רָעָה אֲחַת רָעָה הִנֵּה רָעָה הִנֵּה רָעָה 7:5

나. LXX(70인역) 본문

7:9 διότι τάδε λέγει κύριος (하반절 <하반절 אחת אחת >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)

2. 본문번역

가. 개역개정

7: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, **비상한** 재앙이로다 불지어다 그것이 왔도다

나.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, 에제키엘

5:7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. 보아라, 재앙에 재앙이 **잇따라** 온다.

다. 새번역

5:7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.¹⁾ 재앙이다. 너희가 **들어보지 못한** 재앙이다. 이미 다가왔다(1)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어역에는 ‘재앙에 재앙이 겹쳐 온다!’).

라. NIV

5:7 “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: Disaster! *An unheard-of* disaster is coming.

마. NRSV

5:7 Thus says the Lord GOD: Disaster *after* disaster! See, it comes.

바. TNK

5:7 Thus said the Lord GOD: *A singular* disaster; a disaster is coming.

사. 본문에 대한 사역

5:7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. 재앙이로다 **하나**의 재앙이로다. 불지어다 오고 있도다.

3. 동사분해

5장 7절

אָמַר (אָמַר [utter, say]의 갈, 완료, 3인칭, 남성, 단수 <야훼께서 말씀하셨다>)

אָבָה (אָבָה [come in, come, go in, go]의 갈, 분사, 여성, 단수, 절대형 <오고 있다>)

4. 용어 및 문법 사항 설명

אֶחָד<아하트>는 숫자 ‘하나’ (여성, 절대형)이다. 남성형은 אֶחָד<에하드>다. 주로 숫자는 실명사 앞에서 연계 상태로든지, 예를 들어, 사무엘상 26장 15절 אֶחָד אֶחָד<‘백성 가운데 한 사람’>, 아니면 실명사 뒤에서 절대 상태로 결합된다. 예를 들어, 창세기 27장 38절 אֶחָד אֶחָד אֶחָד(<‘하나의 복’> “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”), 창세기 11장 1절 אֶחָד אֶחָד <‘하나의 언어’>.

에스겔 본문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, ‘하나의 재앙이로다’이다.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과 번역본들은 이를 다양하게 의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. 예를 들어, Rashi, Kimchi, W. Greenhill, D. I. Block 등은 ‘비상한’, ‘보통이 아닌’, ‘예외적인’ 재앙으로(Daniel I. Block, *The Book of Ezekiel*, 250쪽), 반면 Eichrodt, Zimmerli와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(JB, NEB, REB, NRSV) אֶחָד<아하트>를 אַחֲרַי<아하르, after>로 보아, 재앙에 재앙이 ‘잇달아’, ‘겹쳐서’ (upon, after) 온다로 번역하고 있다.

본문을 마소라 본문에 우선한다면, 사역 그대로 ‘하나의 재앙’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. 그런데 시문을 고려한다면 ‘유일한 재앙’으로도 바꿔 볼 수 있겠다. 이는 유일무이하게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재앙일 것이기 때문이다. 그리고 조금 더 의역해 본다면 ‘예외적인 재앙’ (exceptional) 정도까지도 번역해 볼 수 있겠다.

5. 설교에 적용하기

7장은 일정한 공식구 틀로 짜인 세 부분으로 세분된다(2 상하반절-4절; 5-9절; 10-27절). 특히 7장은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강한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할 만큼 수사학적 목적으로 잘 짜여 있다. 더욱이 처음 두 단락은 매우 유사해서 반복구처럼 보인다.

2 상하반절-4절	5-9절
2a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	5 야훼께서 말씀하셨다. 재앙이로다, 비상한 재앙이로다 불지이다 그것이 왔도다
2b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	6 끝이 왔도다,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
3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,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	8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,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
4a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	9a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
4b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	9b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

이러한 반복은 심판의 위협 경각도를 매우 고취시키려는 의도라 볼 수 있다. 두 단락은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 반복되지만, 두 번째 단락은 몇 가지 낱말들이 더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격하게 흥분한 예언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. 이후 10-27절은 조금은 가리앉은 듯한 어조의 엄숙함이 보인다.

에스겔은 본문에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북왕국에 대해 했던 말 “끝이 왔다”(암 8:1-2)는 동일한 부르짖음을 유다에 사용한다. 그리고 5-9절에서 첫 단락의 말씀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지만 “하나의 재앙”, “정한 재앙”, “때리는”이란 낱말이 추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고, 강조된 것을 느낌상 발견할 수 있다. 특히 끝

이 났다는 압도적인 메시지는 아훼의 인내가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한다. 더 이상 관대하게 봐주지 않을 것이다. 이로 인해 다가오는 파멸은 재앙에 재앙이 잇달아 오는 강도보다 더 가혹한, 전무후무한 것이며, 유일한 재앙인 예루살렘 멸망이다.

:: 홍성민 서강대학교(B.E.)를 나와 장로회신학대학교(M.Div.)에서 공부했다.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석사과정 구약학 전공 중에 있으며 본 연구소 비상임 연구원으로 있다.